

# 독일의 직업교육훈련과 고용

Hans-Dieter Schinner (REFA\* 인터내셔널 회장)

## ■ 독일의 기본적인 표준교육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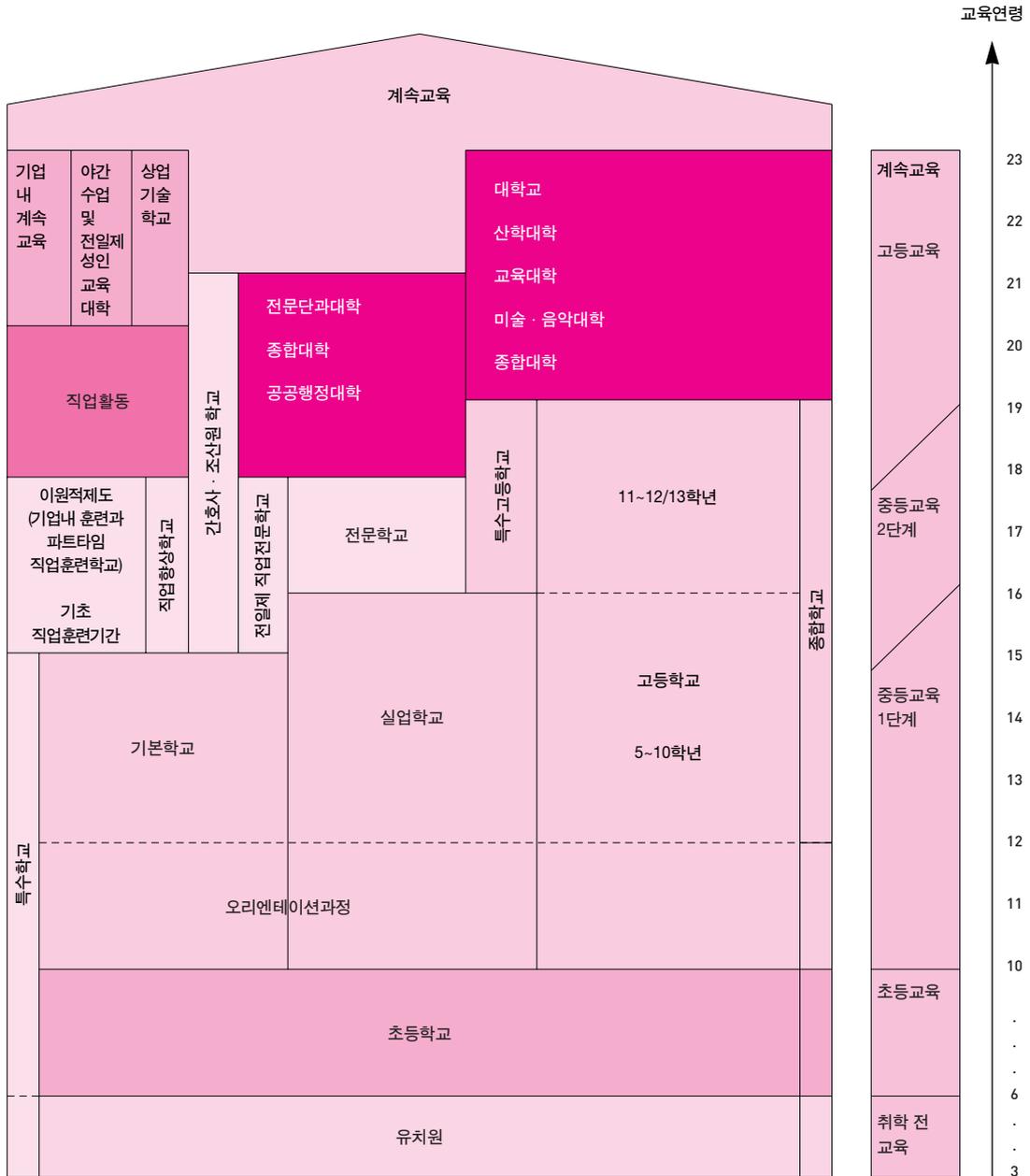
독일의 교육제도는 복잡하고 상호 연결되어 있다. 기본 교육구조 외에도 각종 교육 및 훈련기관에서 제공되는 주요 내용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연방교육연구부(Federal Ministry of Education and Research)가 2004년에 발표한 내용([그림 1] 참조)은 현재와 향후 교육제도의 발전 및 독일 정부의 우선 과제를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

### 유치원 (Kindergartens)

3세 이후부터 초등교육기관에 입학하기까지 유아들은 종일반 또는 반일반 형태로 유치원에 입원한다. 그러나 입원 여부는 선택할 수 있다. 유치원은 유아들을 돌보고 교육을 제공하여 이들이 훌륭한 커뮤니케이션 기술을 지닌 책임 있는 한 개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일부 지역에는 취학 전 아동들을 대상으로 초등학교 진학 준비를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학교 병설유치원 등도 있다.

\* 직무디자인, 산업조직개발을 목적으로 노·사가 공동으로 참여하여 설립한 협회로 독일 산업 전반에 대한 교육훈련, 평생교육과 이에 관한 컨설팅을 제공한다.

[그림 1] 독일 교육제도의 기본 구조



- 연방정부의 교육제도로 주단위로 약간씩 차이가 있음.
- 교육연령은 해당교육기관에 입학가능한 최연소 나이를 의미함.



### **초등학교 (Primary schools / Grundschulen)**

초등학교는 만 6세 아동들이 입학하는 4년제 기초 학교이다. 베를린 및 브란덴부르크주 (Brandenburg)는 초등학교가 6년제이다. 아동들은 누구나 초등학교에 입학하고, 기본적인 교육을 제공받으며, 중등학교(secondary schooling)에 진학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 초등학교 정규교과 과목은 독일어, 수학, 미술 및 공예, 음악, 체육, 기초 생물, 물리, 화학, 사회생활, 역사 및 지리 등으로 편성되어 있다. 이 외에도 모든 주에서 외국어 교육이 추가된다.

### **오리엔테이션과정 (Orientation stage / Orientierungsstufe)**

5학년 및 6학년 과정으로서, 중등학교 일부에 해당하거나 별도로 구분된다. 오리엔테이션과정의 목적은 학생들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홍보를 함으로써 학부모들이 자신의 자녀를 위해 어떤 유형의 중등학교를 선택할지를 결정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 **기본학교 (Secondary general schools / Hauptschulen)**

초등학교를 이수한 후 중등학교에 진학하지 않는 모든 학생들은 의무적으로 기본학교인 하우프트슐레에 진학해야 한다. 하우프트슐레는 5학년부터 9학년 과정에 해당되며, 일부 주에서는 10학년도 포함된다. 대부분의 주에서는 하우프트슐레의 10학년 진학을 선택한다. 하우프트슐레 학생 중 30%는 10학년까지 진학한다. 본 과정에서는 실용적 직업훈련의 기초가 되는 일반적인 교육을 제공한다.

### **실업학교 (Intermediate schools / Realschulen)**

실업학교인 레알슐레는 5학년부터 10학년까지 또는 7학년부터 10학년까지를 포함한다. 일반적으로 이 같은 레알슐레에서 발급한 실업학교 졸업증서를 취득한 경우, 모든 유형의 중간 수준의 직종에 대한 훈련을 받을 수 있다. 본 졸업증서 취득자는 전문학교인 Fachoberschulen(아래 참조), 특수고등학교(specialized grammar schools) 또는 11~13학년만을 제공하는 고등학교 등에 진학할 수 있다 (Gymnasien in Aufbauform). 레알슐레는 일반교육을 확장한 것이다.

### **고등학교 (Grammar schools / Gymnasien)**

원칙적으로 고등학교는 9년 또는 8년 과정이거나 (5~13학년 또는 12학년) 또는 7년 과정 (7~13학

년)이다. Saxony 또는 Thuringia의 학교들은 12개 학년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편 거의 모든 주에서 12년 동안의 학교 교육을 수료한 후 취득하는 최종 졸업증서인 아비투어(Abitur)를 발부하거나 또는 발부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이는 11~13학년에 해당하며, 원칙적으로 실업학교인 레알슐레에서 졸업증서를 취득한 모든 학생들에게 입학 자격을 부여하는 고등학교도 있다. 고등학교에서 발부한 졸업증서를 취득한 학생들은 모든 고등교육기관에 진학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 **종합학교 (Comprehensive schools / Gesamtschulen)**

종합학교는 다양한 유형으로 분리되었던 중등학교를 통합하여 조직 및 커리큘럼을 제공한다. 부가형 및 협력형 종합학교(동일 학교 건물 내에 상이한 수준의 중등학교가 인접해 있는) 외에도 통합형 종합학교(모든 학생들이 합동 수업을 함)가 있다.

#### **특수고등학교 (Specialized grammar schools / Fachgymnasien)**

특수고등학교는 직업교육을 지향한다. 실업학교인 레알슐레는 졸업증서를 취득하거나 또는 그에 준하는 자격을 갖춘 학생들이 이 학교에 진학할 수 있다. 본 학교의 3년 과정(11~13학년) 이수 후 졸업증서인 아비투어(Abitur)를 취득한 학생들은 모든 고등교육기관에 진학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 **특수학교 (Special schools / Sonderschulen)**

특수학교는 장애를 가진 아동 및 청소년들의 특수한 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해 특수한 교수 개념을 사용한다. 그리고 장애 유형에 따라 학교가 다양하다. 특수학교는 초등학교 및 중등학교 교육의 1단계 및 2단계 모두를 제공할 뿐 아니라(때로는 기숙학교 형태로 제공됨)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 대한 실용적인 조언을 제공한다. 또한 실업학교, 고등학교, 직업학교에 상응하는 기관들이 존재한다.

#### **야간 수업 및 전일제 성인교육대학 (Evening classes and full-time adult education colleges / Abendschulen und Kollegs)**

성인들을 대상으로 기초학교 졸업증서, 실업학교 졸업증서 또는 고등단계 학교에 진학할 수 있는 입학 자격을 주는 아비투어(Abitur)를 취득할 수 있도록 제2의 기회를 제공하는 기관들이 있다. 기초



학교, 실업학교 및 고등학교가 제공하는 야간 수업이 있다. 이 수업에 참여할 경우에도 초기 몇 년간 일을 병행한다. 전일제 성인교육대학(Kolleg)은 전일제 교육을 제공하고, 성인들이 아비투어(Abitur)를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이수자들은 일을 병행하지 않는다.

#### **기초 직업훈련기간 (Basic vocational training year / Berufsgrundbildungsjahr)**

전일제 또는 시간제 수업을 통해 기초적인 일반지식이나 특정 직무 분야와 관련된 기초적인 직무 지식을 습득한다.

#### **이원적 직업훈련 (Dual vocational training / Duale Berufsausbildung)**

이 제도는 두 개의 학습 장소, 즉 기업체와 시간제 직업학교에서 교육과 훈련이 제공되기 때문에 이원적이라고 부른다. 이는 주요 직업교육 형태로서, 한 개 연령 그룹 중 60% 이상이 이원적 직업교육을 받는다. 개별 직업에 대한 교육은 교육 명령(연방정부의 명령 형태임)의 통제를 받는다. 현재 연방정부가 교육 명령을 발부하여 인정한 직업은 약 350개에 해당한다.

#### **전문학교 (Fachoberschulen)**

실업학교 졸업증서 또는 이에 상응하는 자격증을 취득해야만 전문학교에 입학할 자격이 주어진다. 전일제 수강인 경우 최소 1년, 시간제의 경우 최대 3년까지 수강이 가능하다. 이 전문학교를 성공적으로 이수한 후 졸업증서를 취득해야 전문단과대학(Fachhochschulen)에 진학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 **전일제 직업전문학교 (Full-time vocational schools / Berufsfachschulen)**

전일제 직업전문학교는 최소 1년 이상의 수업을 실시한다. 일반적으로 자발적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본 학교는 전일제 필수교육을 이수한 후 입학이 가능하다. 실용 직업교육을 이수한 적이 없는 자들을 대상으로 직업 준비교육을 제공하거나 완전한 직무교육을 실시한다. 기말시험을 통과한 수강생들은 졸업증서를 발급받으며, 2년 과정을 이수한 이들에게 발급되는 본 증서는 실업학교 졸업증서에 상응하며, 상업기술학교에 진학할 수 있는 자격을 인정한다. 전일제 직업전문학교 수료자들에게는 이에 해당되는 직업에 종사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 **직업향상학교 (Vocational extension schools / Berufsaufbauschulen)**

직업향상학교는 현재 직업교육을 받고 있거나 직장을 가진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한다. 본 과정은 필수시간제 직업학교 교육을 이수한 자 또는 시간제 직업학교에 최소 6개월 이상 취학한 자에 한해 필수시간제 직업학교 교육에 추가하여 참여할 수 있다. 대부분의 직업향상학교는 특정 전문 과목을 특화하여 제공한다. 전일제 과정은 12~18개월 과정이며, 시간제는 3~3.5년 과정이다. 본 과정을 성공적으로 이수한 자는 실업학교 졸업증서에 해당하는 증서를 발급받으며, 상업기술학교에 진학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 **간호사, 조산원학교 (Schools for nurses, midwives, etc./ Schulen des Gesundheitswesens)**

본 학교는 비인문 분야인 보건직종, 즉 간호사, 소아과 간호사, 조산원 (남/여), 안마사, 직업치료사, 물리치료사 등을 대상으로 교육과정을 제공한다. 이들 학교 중 다수가 종합병원과 통합되어 종합병원 구역 안에 설립되어 이론교육 및 실습훈련을 제공한다.

### **상업기술학교 (Trade and technical schools / Fachschulen)**

상업기술학교는 직업교육을 이수한 실무 경험자를 대상으로 한 자발적 교육과정이다. 일부의 경우, 다년간 실무에 종사하거나 또는 특수 능력을 인정받아 진학하는 경우도 있다. 이들 학교는 고급 직업 훈련(예 : 석사 또는 기술자격증 과정)이 가능하다. 전일제는 6개월~3년, 시간제는 일반적으로 6~8.5년 과정이다.

### **대학 (기술대학 포함) / Universitäten (Technische Universitäten)**

대학은 독일의 전통적인 고등교육기관으로서 다양한 학문을 주제로 교과과정을 제공한다. 대학은 강의와 리서치를 혼합하여 제공하고, 박사학위 수여 권한이 주어진다.

### **미술 · 음악대학, 신학대학, 교육대학 (Colleges of art and music, colleges of theology and colleges of education / Kunst-, Musik-, Theologische und Pädagogische Hochschulen)**

미술 · 음악대학(Kunst- und Musikhochschulen)은 순수 예술학문 분야의 교육과정을 제공한다. 신학대학(Theologische Hochschulen)은 신학자를 대상으로 한 훈련을 실시한다. 교육대학



(Pädagogische Hochschulen) (Baden-Württemberg, Saxony-Anhalt, Schleswig-Holstein, Thuringia주에서만 유지되고 있음)은 초등학교, 기본학교, 실업학교 교사들을 대상으로 교육과정을 실시하며, 때로는 특수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하기도 한다. 다른 주의 경우, 교사들은 대학, 기술대학, 종합대학, 미술·음악대학에서 교육훈련을 받는다.

#### 종합대학 (Comprehensive universities / Gesamthochschulen)

종합대학(Hesse, North Rhine-Westphalia에만 존재)은 대학, 교육대학, 고등교육학교, 미술·음악대학의 리서치 및 강의 기능을 통합하여 제공한다. 이와 같은 통합 학문과정이 본 종합대학의 특징이다. 종합대학의 공식 명칭은 대학-종합대학이다.

#### 협력교육대학·전문단과대학 및 공공행정대학 (Universities of cooperative education / Fachhochschulen and Colleges of public administration / Verwaltungsfachhochschulen)

전문단과대학 및 공공행정대학은 응용과학지식 및 방법론 또는 예술 분야에서의 창의적 능력을 요구하는 직업에 종사하는 이들을 대상으로 고도의 실무 훈련을 제공하며, 엔지니어, 경제, 사회과학, 농업, 디자인 분야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학문 과정을 제공한다. 공공행정대학(Fachhochschulen für öffentliche Verwaltung)은 연방정부 및 주정부가 운영하며, 공공부문의 책임자가 되고자 하는 이들을 대상으로 훈련을 실시한다.

### ■ 이원적 직업훈련제도- 기업의 요구사항을 최대한으로 충족시키는 방법론

독일의 이원적 제도는 젊은이들이 기업의 실무 업무에 참여하고 직업훈련센터에서 제공하는 강의를 수강함으로써 가장 효율적으로 지식을 습득하도록 해줌으로써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실무와 강의를 혼합함으로써, 견습과정 시험에 합격한 ‘숙련된 노동자’가 실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해준다. 즉,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의 자격 요건과 업무수행능력 수준을 예상할 수 있다. 본 제도에 대해 공공 및 민간부문의 이해당사자가 많이 존재한다. 이 같은 이원적 직업훈련제도는 아래와 같이 설정된다.

---

## 1. 이원적 직업훈련 제도 (Dual System of Vocational Training)

### 1.1 경제 관련 직업훈련 파트너 (Partner of vocational training in the economy)

- 산업, 무역, 공예, 농업, 공공행정, 보건서비스, 기타 전문 직종
- 기업, 병원, 농업 관련 기업, 변호사 사무소 등 약 500,000개
- 훈련센터 약 900개(교육생 100,000명)
- 공인 교육트레이너 약 100만 명

### 1.2 경제 파트너십을 가진 직업훈련학교

- 훈련학교 약 2,000개
- 강사 약 130,000명

### 1.3 협회 (chambers)의 역할

- 기업 컨설팅
- 견습생 등록(170만 명)
- 교육트레이너 공인자격 수여
- 시험 주관
- 지역별 협의 지속

### 1.4 노조와 사용자단체 간의 파트너십

- 지역단위
  - 협회 소속 직업훈련위원회
  - 시험위원회 : 자원봉사위원 약 300,000명, 매니저, 노조 대표, 교육 트레이너
- 주단위
  - 교육부와 연계된 직업훈련위원회
- 연방 주단위
  - 연방직업훈련연구소 (Bundesinstitut für Berufsbildung) 내의 위원회



## ■ 계속교육(Continuing education)

계속교육이란, 아동 및 청소년 시기에 걸친 다양한 기간 동안 학교교육을 이수한 후(비공식적 교육을 포함한) 학습을 지속하거나 다시 시작하는 것을 의미한다. 계속교육은 일반계속교육과 직업계속교육으로 나뉜다. 대부분의 정치 및 문화 관련 과정은 일반계속교육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된다. 고등교육기관 및 자발적 교육기관은 양 분야에 대한 과학 교육 및 원격 교육과정을 실시한다. 계속교육은 자발적 참여, 과정의 다양성, 다양한 교육기관, 정부 보조 등이 특징이다.

## ■ 독일 교육제도의 주요 특징

2006년 발표된 국가 교육 보고서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교육 참여율과 독일인의 교육 수준 향상을 주내용으로 다루고 있다. 본 보고서는 교육의 성공 여부와 사회 출신 배경 간에 상관관계가 있다고 본다. 이민가족 출신의 젊은이들의 경우 특히 그러하다. 따라서 저연령 아동교육 제공, 각 개인에 대한 지원, 유럽공동체에서 지원하는 바와 같은 평생교육 원칙 적용, 이동을 대상으로 한 책임 의식 함양,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신입교육 및 재교육에 대한 개혁 등에 더욱 많은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현재 및 미래의 교육제도의 품질은 교육제도와 관련된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이에 대한 높은 책임의식을 가질 때에야 비로소 유지될 수 있다.

인구 고령화, 즉 고령인구의 급속한 증가 및 청년실업 증가가 향후 독일이 직면하게 될 주요 사회 문제가 될 것이다. 모든 정당, 공업협회, 사회 관계기관 등 모든 기관들은 현황을 인지하고 아이디어 및 지속가능한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

## ■ 독일의 교육제도, 직업훈련, 계속교육 및 고용

### 교육 · 직업훈련 · 계속교육

독일의 경우, 교육훈련제도 중 일부는 바바리아(Bavaria), 헤세(Hesse) 등 주정부의 책임 소관이다. 교육 기회는 개인의 능력 및 역량에 입각하여 모든 개인들에게 제공된다. 독일과 같은 자유시장경제

하에서, 고용자격요건은 일반적으로 시장 니즈를 충족시켜야 할 사용자가 정하게 된다. 따라서, 교육과정(견습과정 또는 대학 학위취득 등)을 이수한 후 직업 및 책임에 따라 다양한 자격 수준이 요구된다. 학교교육 중 견습과정 이외에도, 석사학위 취득을 위해 대학을 진학하거나 학사학위 취득 자격을 획득하기 위해 협력적 교육대학(University of Cooperative Education)에 진학하는 등 다양한 기회가 있다.

어떠한 경우라도 독일의 교육제도는 상호 연결되어 모든 개인이 교육의 기회를 얻어 전문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물론, 이 같은 기회는 개인의 능력 및 역량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유럽공동체의 교육 내용 및 학위와 조화를 이루는 과정에서, 독일 교육제도는 유럽공동체 정책에 맞게 조정되고 있다. 즉 예를 들어, 향후 학위는 학사 또는 석사학위를 의미하며(더 이상 독일 디플로마는 존재하지 않음), 모든 수준에서의 직업훈련, 대학교육, 계속교육 프로그램 등의 품질 표준을 준수하는 것이 우선적인 과제가 된다. 향후, 모든 직업 및 학위는 유럽자격제도(European Qualification Framework : EQF)와 연계될 것이다.

많은 기업들이 현업에 즉시 투입될 수 있는 엔지니어 등 학위 소지자 확보에 관심이 높으므로, 협력적 교육대학(University of Cooperative Education)이 더욱 선호되고 있다. 이들 대학은 동일 기간 내에 기업의 견습과정과 협력적 교육대학의 교육과정을 혼합하여 실시한다. 따라서 본 대학의 졸업생들은 대학에서 이론적 학문 지식을 습득하는 동시에 기업체 교육을 받기 때문에 취업 후 곧바로 현업에 투입될 수 있는 역량을 지닌 전문가로 양성된다.

독일은 계속교육과 관련한 오랜 전통을 이어오고 있다. 계속/추가교육은 공식적인 자격조건 취득이 없어도 커리어를 개발하거나, 추가교육과정을 통해 자격 요건을 갖춘 후 승진할 수 있도록 해주는 수단이 되어 왔다. 숙련된 노동자, 기술자, 장인들이 보다 나은 직업을 구하고, 높은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기 위해 추가 역량을 개발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1924년 설립된 REFA는 이 같은 계속/추가교육의 전형적인 사례가 된다. 오늘날 REFA는 숙련된 노동자, 산업계, 행정 및 서비스 부문의 중간관리자 및 최고경영진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한다. 프로세스 최적화를 위한 솔루션을 도출함으로써 생산성이 향상될 수 있다. 이를 위해, 업계의 실무경험과 리서치 연구 결과를 조합하여 도출된 방법론은 선택 · 적용해야 한다. 비정부 민간협회인 REFA는 매우 실무적인 훈련, 코칭, 컨설팅을 제공함으로써 독일의 계속교육제도를 보완하고 있으며 독일에서의 경험을 50여 개국으로 성공적으로 전파해 왔다.



오늘날, 추가교육이란 직업을 확보·유지하기 위한 평생학습의 개념과 다르지 않다. 개발 및 혁신이 빠르게 구현되고 있어 지속적인 적응 및 능력·역량의 지속적 향상이 요구되고 있는 현실에서 이 같은 접근법은 매우 유용하다.

## 유럽의 평생학습 분야 구현

Bruges-Copenhagen 프로세스 결과 유럽 내의 주요 목표 및 협력 분야는 다음과 같이 정리되었다.

- 교사 및 훈련트레이너 교육
- 핵심 역량
- 언어 학습
- 정보 및 커뮤니케이션 테크놀로지
- 수학, 과학 및 테크놀로지
- 리소스 최대 활용
- 이동성(mobility) 및 유럽 내 협력
- 공개 학습 환경, 학습 매력도 향상, 업무활동과 사회생활과의 연결 강화
- 적극적인 시민권 행사 및 카운셀링
- 비공식적인 학습에 대한 인정
- 지수 및 벤치마크를 통한 진척도 측정

유럽공동체 내에서의 문화 이해, 교육 및 훈련 부문에서의 성과에 대한 투명성 및 호환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제도 통합 노력이 경주되고 있다. 모든 유럽공동체 가입국의 노동시장에 고급 인력들이 제공될 것으로 기대된다. 혁신이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고 있는 글로벌 시장에서 교육 및 훈련 제도의 품질이 경쟁력을 좌우하는 주요 요인이 될 것으로 인식된다.

## ■ 맺음말

독일은 자국민들이 직업 커리어를 준비하도록 하면서, 기업의 요구사항을 최대한 충족시킬 수 있도록

록 기회를 제공하는 데에 초점을 두고 교육제도를 구축해 왔다. 교육제도 개선은 모든 사회 구성원들이 참여하는 지속적인 프로세스이다. 사용자단체 및 노조 모두 경제발전의 혜택을 회원들에게 정당하게 배분하는 데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이 프로세스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전세계에서의 경험 및 유럽공동체 프로그램에 비추어 볼 때, 국민들이 평생학습에 참여할 때만이 자신의 직업 분야에서 더 많은 역량을 구축하거나 또는 해당 직업 분야에서 요구하는 높은 표준을 준수함으로써 실업을 탈피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갖게 될 것이다.

저출산, 청년실업, 특히 이민가족 출신의 청년의 실업과 인구 고령화가 향후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정당과 사회적 파트너들은 국민 개개인 및 경제의 요구사항을 최대한으로 충족시킬 수 있는 솔루션을 도출하기 위해 이미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초등교육, 중등교육 및 계속교육의 경우, 더욱 더 많은 민간 기업들이 과거에 국가 보조를 받던 전통적인 교육제도와 유사한 교육 내용을 제공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스칸디나비아를 모범 사례로 들 때, 커리큘럼이 모듈화되고 교육 장소에 점차 덜 구애받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예 : 공개학습센터, 미디어를 통한 학습 등). 즉 강의실 출석을 통한 세미나와 e-러닝이 조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KLI**

---

#### 참고문헌

---

- Avenarius, Hemann.
- Bildung in Deutschland : ein indikatorengestützter Bericht mit einer Analyse zu Bildung und Migration
- Herausgeber : Konsortium Bildungsberichtserstattung, W. Bertelsmann Verlag GmbH & Co. KG, Bielefeld 2006.